

파키스탄 국가신용도 평가리포트

2015. 9.

I. 일반개황	1
II. 경제동향	2
III. 정치·사회동향	7
IV. 국제신인도	10
V. 종합 의견	12

I. 일반개황

면적	796천 km ²	G D P	2,501억 달러 (2014년도)
인구	1.86억 명 (2014년도)	1 인 당 GDP	1,343 달러 (2014년도)
정치체제	연방의회제	통화단위	Pakistani Rupee(PR)
대외정책	비동맹중립	환율(달러당)	101.10 (2014년도)

- 파키스탄은 서남아시아에 위치한 국가로 동쪽으로 인도, 서쪽으로 아프가니스탄 및 이란, 북쪽으로 중국, 남쪽으로 아라비아 해와 인접하고 있음.
-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인도(주로 힌두교)가 영국으로부터 독립하는 과정에서 동파키스탄과 서파키스탄이 연합하여 인도로부터 분리 독립하면서 수립됨. 이후, 1971년 동파키스탄이 방글라데시로 국명을 변경하고 파키스탄 연방을 탈퇴하여 현재의 영토로 남게 됨.
- 금, 은, 석탄, 천연가스, 구리, 철광석 등 자원이 풍부하게 매장되어 있으며 인구 규모도 세계 7위로 성장 잠재력이 높음.
- 인도와의 영토분쟁, 이슬람 종파 간 내분, 아프가니스탄에서 유입된 탈레반 무장 세력의 준동으로 정정불안이 지속되고 있음.

II. 경제동향

1. 국내경제

<표 1> 주요 국내경제 지표

구분 ^{주)}	단위: %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e
경제성장률	3.6	3.8	3.7	4.1	4.3
재정수지/GDP	-6.9	-8.4	-8.1	-4.7	-4.7
소비자물가상승률	13.7	11.0	7.4	8.6	4.7

주) 회계연도(7.1~6.30) 기준

자료: IMF.

□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2014/15년 경제성장률 4.3% 기록

- 파키스탄은 인더스강의 풍부한 수자원에 힘입은 농업(GDP의 21% 차지, 전체 인구의 약 70% 종사) 및 국내 소비 위주의 경공업 중심의 국가임.
- 한편, 연간 수출입 규모가 총 650억 달러(GDP 대비 약 24%)에 불과하며, 열악한 인프라, 사회불안,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경제성장률이 주변국에 비해 낮은 편임.
- 2012/13년에는 전력수급 불안과 치안 악화에 따른 민간투자 감소로 경제성장률이 3.7%로 둔화되었으나, 2013/14년에는 에너지 분야 개혁에 따른 전력 및 가스 공급 증가 등에 힘입은 산업성장으로 경제성장률이 4.1%로 상승하였음.
- 2014/15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유가 하락 등에 힘입어 2014/15년 물가상승률 4.7%로 안정

- 반복되는 자연재해로 인한 식료품 가격 상승,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 국제 원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2007/08년부터 2011/12년까지 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함.
- 하지만, 2012/13년에는 식량수급 개선에 따른 국내 식료품가격 안정, 국제 원자재가격 하락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7.4%로 낮아짐.
- 2013/14년에는 전력 보조금의 단계적 삭감 등으로 소비자물가상승률이 전년 대비 상승한 8.6%를 기록하였으나, 2014/15년에는 국제유가와 상품 가격 하락으로 4.7%로 떨어진 것으로 추정됨.

□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규모는 전년 수준 유지

- 파키스탄은 취약한 세수 기반과 비효율적인 세원 관리, 인도와의 분쟁으로 인한 국방비 지출, 각종 보조금 지급 등으로 만성적인 재정적자 상태임.
- 2012/13년에는 세외수입 증가, 연합국지원기금(CSF)* 수취 등으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이 전년 대비 낮아진 8.1%를 기록했으며, 2013/14년에는 IMF 구제금융 제공 조건인 세수 제도 개편, 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에 따른 면허 대금 수취 등으로 동 비율이 4.7%로 감소하였음.
- * 미국이 테러와의 전쟁 참여 동맹국에 제공하는 지원기금
- 2014/15년에는 실향민 지원 및 북와지리스탄 대테러작전 등에 대한 지출에도 불구하고 유가 하락과 관세 부과대상 확대를 통한 세수 창출 등으로 동 비율은 전년 수준인 4.7%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2. 경제 구조 및 정책

가. 구조적 취약성

□ 전력 등 만성적인 에너지 부족이 경제 발전을 저해

- 치안 악화에 따른 투자 감소, 열악한 재정 등으로 인해 시설투자가 부진했던 반면 에너지 수요가 큰 폭으로 급증하였음. 이에 최근 정부가 에너지 분야 개혁을 추진 중이나 여전히 연간 약 5,000MW가 부족한 상황임. 이러한 만성적인 전력난에 따라 전국적으로 정전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경제 및 산업 활동에 큰 걸림돌이 되고 있음.
- 화력발전의 비중이 높은 편이나 높은 발전단가와 만성적인 가스부족 현상 등으로 발전소 가동률이 낮고, 비효율적 전력 배분, 송전시설 노후화로 인해 전력 손실이 많은 반면 요금징수율은 낮아 전력 부문의 운영적자가 누적되어 왔음.
- 세계경제포럼의 2014-2015 글로벌경쟁력보고서(The Global Competitiveness Report 2014-2015)에서 인프라 부분은 조사대상 148개국 중 119위를 기록하였으며 특히 전기공급 부문(133위)의 순위가 낮음.

□ 낮은 취학률과 여성에 대한 차별에 따른 취약한 인적자본

- 16세 이하 어린이들의 의무교육을 보장하고 있으나 높은 빈곤률로 취학률이 낮으며, 종교적인 이유로 인해 여성에 대한 학업, 취업 등에 대한 차별이 심하여 양질의 인적자본 형성이 어려움.
 - 유엔개발계획(UNDP)의 2014년 인간개발지수(Human Development Indicator: HDI)에서 파키스탄은 총 187개국 중 146위를 기록하였으며, 유엔의 새천년 개발목표(Millennium Development Goals: MDGs) 중 초등 취학률 및 식자율은 2013/14년 기준 각각 57%, 58%로 목표(100%, 88%) 대비 매우 낮은 수준을 기록함.
 - 평균학업기간이 남성 6.1년, 여성 3.3년으로 차이가 나는 등 유엔개발 계획(UNDP)의 2014년 성불평등지수(Gender Inequality Index: GII)에서 파키스탄은 총 149개국 중 126위를 기록함.

나. 성장 잠재력

□ 풍부한 저임노동력

- 전체 인구는 약 2억 명으로 세계 7위 규모이며 생산가능인구 비중이 62.0% (2013년 기준)로 높아 임금 수준이 낮은 편임.
 - 일본 Jetro에 따르면, 2014년 12월 기준 파키스탄의 일반 생산직 노동자 임금은 월평균 173달러로 중국 403달러, 필리핀 249달러, 인도 239달러, 베트남 176달러 등에 비해 낮은 수준임.

□ 자원개발 산업의 성장 가능성

- 파키스탄은 천연가스, 석탄, 석회석, 철광석 등 풍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국토의 75%에서 지질학적으로 광물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음.
 - 특히, 석탄, 석고, 돌로마이트 등은 경제성이 충분한 것으로 알려져 있음. 다만, 인프라 및 기술 부족, 비효율적 행정 처리 등으로 광산업이 GDP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 내외로 낮음.

다. 정책성과

□ 경제재정개혁안 이행을 통해 거시경제 개선과 구조개혁 진행 중

- IMF 차관 조건인 2013/14~2015/16년 경제재정개혁안을 성실히 이행하고 있으며, 동 개혁안은 크게 재정, 통화, 금융, 구조개혁 등 4가지 부문으로 구분됨.

- 재정 부문의 경우, 2016/17년 3.5%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중을 목표로 세수 확대, 에너지보조금 삭감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며 2015/16년 예산안에서는 동 비중을 4.3%로 계획함.
 - 자금세탁방지법, 소득세율 및 금융소득세율 인상, 광범위한 세금감면혜택 철회 및 추가부여 금지, 품목별 관세율 조정 등의 세수확대 방안을 발표하였으며, 2013/14년 GDP의 2%에 달하던 에너지보조금을 추가요금 징수를 통해 2014/15년 0.8%로 축소함.
- 통화 부문의 경우, 효과적인 통화정책 수행을 위해 중앙은행(State Bank of Pakistan)의 운영체제를 개선하였으며, 물가안정을 최우선 목표로 중앙은행 앞 독립성을 부여하는 법안 개정을 추진 중임.
 - 또한, 중앙은행의 지속적인 외화매입으로 2012/13년말 1.4개월에 불과했던 1개월 수입액 대비 외환보유액 비중이 2015년 6월말 현재 2.3개월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됨.
- 금융 부문의 경우, 증권시장 정비와 투자자 보호를 위해 2015년 증권법을 입법 완료하였으며, 증권거래, 선물매매, 기업구조개선, 예금보호기금, 신용정보 등에 대한 법안들을 추가로 준비 중임.
 - 파키스탄의 은행 부문은 2015년 3월말 현재 평균 자기자본비율 17.4%를 보이며 건전성과 수익성 모두 양호한 것으로 평가됨.
- 구조개혁 부문의 경우, 크게 에너지 분야 및 공공기관 개혁, 투자환경 개선으로 구성됨.
 - 만성적인 전력 및 가스 부족을 겪고 있는 에너지 분야 개혁을 위해 기술·재무적 감사를 실시하고 비용 절감, 징수율 확대, 효율 합리화 등을 통한 재무구조 개선과 수요·공급에 대한 관리를 지속적으로 실시 중임.
 - 공공기관 개혁을 위해 주식공개상장과 민영화 등을 추진 중임. 현재 11개의 주식공개상장 대상 공공기관 중 4개 기관에 대해 주식매각을 완료하였으며, 민간참여를 통한 파키스탄 항공, 철강, 철도 회사의 구조조정을 추진 중임.
 - 2014년 건축허가, 세금납부, 계약이행, 창업, 수출입, 자금조달 등을 중점으로 한 투자환경개선안을 마련하고, 사업자등록 및 세금납부를 위한 온라인 홈페이지 개설하는 등 개선안을 이행 중임.

3. 대외거래

<표 2> 주요 대외거래 지표

단위: 백만 달러, %

구 분	2010/11	2011/12	2012/13	2013/14	2014/15 ^e
경 상 수 지	-2,234	-2,342	-4,416	-3,544	-2,280
경 상 수 지 / G D P	0.1	-2.1	-1.1	-1.3	-0.5
상 품 수 지	-12,544	-15,594	-16,099	-17,767	-17,039
수 출	26,308	24,791	25,115	24,798	24,136
수 입	38,852	40,385	41,214	42,565	41,175
외 환 보 유 액	14,528	10,242	5,156	11,807	14,462
총 외 채 잔 액	67,323	65,478	60,899	65,365	64,157
총 외 채 잔 액 / G D P	32.1	29.0	26.2	26.1	23.4
D S R	9.3	10.0	13.7	14.1	13.4

자료: IMF, EIU, OECD.

□ 상품수입 감소 및 해외근로자 송금 확대로 2014/15년 경상수지 적자 감소

- 해외근로자 송금, 연합국지원기금 수취 등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가 낮은 섬유, 쌀, 가죽제품 등을 주로 수출하고 원자재, 기계류, 소비재 등을 수입함에 따라 막대한 상품수지 적자가 발생하여 매년 경상수지 적자를 기록하고 있음.
 - 해외근로자 송금은 GDP 대비 약 6%에 달하며, 주로 사우디아라비아, U.A.E. 등의 중동지역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60% 이상임.
- 2012/13년에는 루피화 가치 하락에 따른 수입물가 상승으로 상품수지 적자 규모가 161억 달러를 기록하여 186억 달러의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1.1%를 기록하였음.
- 2013/14년에는 해외근로자의 송금 확대에 따른 경상이전수지 흑자(209억 달러) 증가에도 불구하고, 산업원자재 등의 수입 증가로 상품수지 적자가 178억 달러까지 확대되어 동 비중이 1.3%로 다소 증가하였음.
- 2014/15년에는 대 EU 수출 품목 관세혜택에도 불구하고 면직물 가격하락으로 수출 규모가 소폭 감소했으나, 유가하락에 따라 석유수입액이 더 큰 폭으로 감소하여 상품수지 적자가 170억 달러로 감소하였음. 더욱이 해외근로자의 송금 확대로 경상이전수지 흑자도 218억 달러로 증가하여 GDP 대비 경상수지 적자 비중이 0.5%까지 개선된 것으로 추정됨.

□ IMF의 지원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로 외환보유액 증가

- 2011/12년 IMF 자금 지원 중단으로 외환보유액이 102억 달러(2011/12년)에서 52억 달러(2012/13년) 수준으로 감소하였으나, 2013/14년 IMF의 구제금융 개시 및 해외근로자의 송금 증가로 2014/15년 외환보유액은 145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2008년부터 기집행된 IMF 지원액 상환과 수출 증가율 둔화 등으로 총수출 대비 외채원리금상환액 비중(D.S.R.)이 2011/12년 9.3%에서 2014/15년 13.4%로 상승하였음.
- 파키스탄은 쌍둥이 적자 만성화로 원조 및 외채에 의존하고 있으나, 2014/15년 GDP 대비 총외채잔액 비율은 23.4%로 양호한 수준임.
 - 2014/15년 총외채 중 단기외채 비중이 7.9%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되는 등 외채구조 역시 양호한 편임.

□ 2012/13년 이후 외국인직접투자액 증가세로 추세 전환

- 치안 악화, 정정 불안, 인프라 미비 등으로 외국인직접투자액은 2007년 이후 감소 추세였으나, 2013년 이후 증가세로 반전하였음.
 - 2007/08년 54.1억 달러에 이르던 외국인직접투자 유입액은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11/12년에는 9억 달러를 기록함.
 - 그러나, 정부의 외국인투자유치 노력에 힘입어 2012/13년에는 전년 대비 52.2% 증가한 13억 달러를 기록하였으며, 2013/14년에는 통신, 석유가스, 금융, 전력 분야로 투자자금이 유입되면서 전년 대비 7.1% 증가한 14억 달러를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Ⅲ. 정치·사회동향

1. 정치 동향

□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 이후 비교적 안정적 정국 운영

- 2013년 5월 총선에서 나와즈 샤리프(Nawaz Sharif)의 파키스탄무슬림리그(Pakistan Muslim League: PML)가 하원의 과반 의석(342석 중 185석)을 확보하며 1970년 총선이 실시된 이래 최초의 민주적 정권교체가 이루어짐.

- 2015년 3월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제1야당인 파키스탄 인민당(Pakistan Peoples Party: PPP)의 의석수가 기존 40석에서 27석으로 감소한 반면, PML은 기존 16석에서 26석으로 증가하였음.
- 국내의 반 쿠데타 정서와 IMF 구제금융 지원 등에 대한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로 군부 쿠데타 재발 가능성이 낮아 2018년 총선까지 비교적 안정적인 정국운영이 예상됨. 그러나 테러 등 안보 문제가 개선되기 전까지 군부의 영향력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2. 사회 동향

□ 파키스탄탈레반(TTP) 테러 지속

- 아프가니스탄 접경 지역에서 무장 투쟁을 지속하고 있는 TTP 세력은 극단적 이슬람주의를 내세우며 반정부 테러를 감행하여 수많은 사상자를 내고 있음.
- 알카에다 색출을 명분으로 파키스탄 군대가 파슈툰족 자치구역에서 펼친 대규모 소탕작전에 대한 반발로 2007년 13개 이슬람 무장세력이 연합하여 TTP를 창설함.
- 샤리프 총리는 2014년 2월 TTP와 평화협상을 진행하였으나 실질적 성과가 없었음. 이후 TTP는 카라치 지나(Jinnah) 국제공항 테러(2014년 6월), 페샤와르 학교 테러(12월), 편자브주 내무장관 테러(2015년 8월) 등 테러를 지속 감행하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여 파키스탄 정부도 TTP 소탕 작전을 펼치고 있음.

□ 이슬람 다수종파인 수니파와 소수 종파 간 갈등 지속

- 이슬람 다수 종파인 수니파와 시아파 등 소수 종파간의 종교 갈등이 지속 되면서 수니파가 소수인 시아파 등에 대해 지속적으로 테러를 가하고 있음.
- 2013년 시아파 밀집 거주지역인 남서부 퀘타시에서 폭탄테러로 인해 300여 명의 사상자가 발생하였으며, 2015년 1월 시아파 사원에서 폭탄 테러가 발생하는 등 종파간 갈등으로 인한 테러사건이 빈번하게 발생 되고 있음.

3. 국제관계

□ 카슈미르 지역 분쟁 등으로 인도와의 관계 개선은 불투명

- 파키스탄과 인도는 1947년 분리 이후 카슈미르 지역 영토 분쟁 등으로 세 차례의 전쟁을 치렀으며, 2003년 정전에 합의했지만 산발적으로 무력 충돌이 계속 이어지고 있어 양국 관계 회복은 요원해보임.
- 다만, 2014년 5월 샤리프 총리의 인도 모디 총리 취임식 참석, 2015년 7월 양자회담 시 모디 총리의 2016년 파키스탄 방문 합의 등 관계개선 노력을 지속 중임.

□ 상호 불신에도 불구하고 미국과는 협력관계 유지

- 파키스탄의 핵개발로 양국관계는 소원하였으나, 2001년 이후 파키스탄이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대 테러전쟁에 협조함에 따라 협력 관계를 유지하고 있음.
- 미국은 파키스탄의 미온적인 대테러활동을, 파키스탄은 미국의 파키스탄 주권침해를 비판하는 등 양국간 갈등에도 불구하고, 미국은 파키스탄의 전략적 입지를 고려하여 막대한 규모의 경제적, 군사적 지원을 하고 있음.

□ 중국과 '전천후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 관계 구축

- 중국은 과거 인도-파키스탄 전쟁시 군사를 지원하는 등 인도 견제를 위해 전략적으로 친 파키스탄 외교정책을 펴고 있으며, 2014/15년 중국의 대 파키스탄 순외국인직접투자액은 2.3억 달러(전체 외국인직접투자액의 32.4%)로 미국(2.4억 달러, 33.7%)에 이어 2위를 기록하는 등 경제적 협력을 강화하고 있음.
- 2015년 4월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파키스탄 국민 방문시에는 중국-파키스탄간 '전천후 전략적 협력 파트너십(All-Weather Strategic Cooperative Partnership)' 구축을 공동 서명하고, 파키스탄 남서부 과다르 항과 중국 신장위구르자치구 카스를 연결하는 총 연장 3,000km의 중-파키스탄 경제 회랑 건설에 450억 달러를 투자하기로 하는 등 51개 양해각서(MOU)를 체결함.

IV. 국제신인도

1. 외채상환태도

□ 경제 및 재정 개혁 목적의 IMF 차관 수혜 중

○ 2013년 9월 IMF는 파키스탄의 2013/14~2015/16년 경제재정개혁안 이행을 위한 총 3년간 67억 달러 규모(43.93억 SDR)의 확장적 차관*(Extended Credit Facility: ECF) 요청을 승인함.

* 국제수지 악화를 보전하기 위한 IMF 차관의 한 종류로 대출조건이 차입국에 유리한 양허성 차관제도

- IMF는 매분기 파키스탄의 개혁안 이행실적 검토결과에 따라 5.4억 달러 (3.6억 SDR)씩 집행하고 있으며('15.7월말 현재 43억 달러 집행완료), 이에 따라 재정수지 적자폭 축소, 외환보유액 증가 등의 성과를 보임.

- 과거 IMF는 2008년 파키스탄의 지급불능사태를 막기 위해 76억 달러를 지원하였으나, 자금지원의 최우선 조건인 일반판매세 징수가 지연되면서 추가 승인한 37억 달러의 집행 없이 2011년 9월 지원을 종료함.

□ 취약한 채무상환 능력으로 잦은 채무재조정 경험

○ 외채 누적으로 파키스탄의 채무 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파리클럽은 6차례 ('72년, '74년, '81년, '99년, '01년 1월 및 12월)에 걸쳐 채무를 재조정한 바 있음.

○ 2015년 3월말 기준 OECD 회원국 수출신용기구(Export Credit Agency: ECA)의 파키스탄에 대한 승인금액은 총 50억 달러(단기 6억 달러, 중장기 44억 달러)임. 이 중 연체금액은 17억 달러로 전체의 35.0%에 달함.

2. 국제시장평가

<표 3>

주요 기관별 평가등급

평가기관	최근 평가 등급	종전 평가 등급
OECD	7등급 (2015. 6)	7등급 (2014. 6)
S&P	B- (2015. 5)	B- (2014. 3)
Moody's	B3 (2015. 6)	Caa1 (2015. 3)

* Fitch는 동국 미평가

□ 주요 신용평가기관 평가

- 치안 악화, 세계경기 침체에 따른 경상수지 적자 심화, 재정적자 증가 등으로 2009년 4월 OECD는 파키스탄의 국가신용등급을 7등급으로 한 단계 하향 조정한 이후 현재까지 같은 등급을 유지함.
- Moody's는 2015년 6월 외환보유액 증가, 경상수지 적자 감소에 따른 외채 상환능력 개선 및 재정수지 적자 감소를 위한 IMF 프로그램의 성실한 이행을 근거로 국가신용등급을 기존 Caa1에서 B3로 한 단계 상향 조정함.
- S&P는 2009년 이후 B-등급을 유지하고 있으며, 2015년 3월 신용등급 전망을 Stable에서 Positive로 상향 조정함. 한편, Fitch는 파키스탄에 대하여 국가 신용등급을 부여하고 있지 않음.

3. 우리나라와의 관계

□ 국교수립 : 1983년 11월 7일 (북한과는 1972년 11월 9일 수교)

□ 주요협정 : 무역협정(1968년), 해운협정(1984년), 경제기술과학협력 및 무역증진 협정(1986년), 이중과세방지협약(1987년), 투자보장협정(1990년), 항공협정(1996년), 무상원조협정(2012)

□ 교역규모 및 해외직접투자 현황

- 2014년 파키스탄과의 교역규모는 12억 달러로 중국과 파키스탄의 2007년 FTA 발효에 따른 중국의 파키스탄 진출 확대와 정정불안에 따른 무역 활동 위축으로 인해 수출입 모두 감소세를 이어가고 있음.
- 2014년 대파키스탄 주요 수출품목 중 열연강판, 석유화학합성원료, 합성 고무가 전년 대비 각각 77.4%, 86.2%, 59.8% 감소하였음.

<표 4> 한·파키스탄 교역 규모

단위: 백만 달러

구분	2012	2013	2014	주요 품목
수출	847	819	770	합성수지, 철강판, 농약 및 의약품
수입	774	522	402	석유제품, 면직물, 천연섬유사
교역규모	1,621	1,341	1,172	-

자료: 한국무역협회.

- 우리기업의 대 파키스탄 해외직접투자는 2015년 6월말 기준 총 43건, 1억 5,308만 달러(누계기준)를 기록함.
- 제조업이 총투자금액의 52.4%, 전기·가스·증기·수도사업이 28.1%를 차지함. 제조업의 세부업종별로는 식료품 업종이 차지하는 비율이 50.1%로 가장 크며, 금속가공제품(18.7%) 및 화학물질·화학제품(16.4%)이 그 뒤를 이음.

V. 종합 의견

- 치안 문제와 취약한 인프라 등에 따른 투자 위축, 낮은 노동생산성 등으로 주변국 대비 낮은 경제성장률을 기록하고 있음. 2014/15년에는 해외근로자 송금 증가에 따른 민간소비 증가 등으로 전년 대비 소폭 상승한 4.3%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한 것으로 추정됨.
- 취약한 세수기반, 비효율적인 세원 관리 등으로 재정수지 적자가 만성화 되었음. 2014/15년에는 유가 하락과 관세 부과대상 확대를 통한 세수 창출 등으로 GDP 대비 재정수지 적자 비율이 전년 수준인 4.7%를 유지한 것으로 추정됨.
- 해외근로자 송금 등에 따른 대규모 경상이전수지 흑자에도 불구하고 원자재, 기계류, 소비재 등에 대한 높은 수입 의존도에 따라 경상수지 적자가 만성적임. 다만, 수출 확대 및 유가 하락으로 2014/15년 GDP 대비 경상수지 비율은 0.5%로 축소된 것으로 추정됨.
- 2013년 5월 총선에서 파키스탄무슬림리그(PML)가 다수 의석을 확보하였으며 국내의 반 쿠데타 정서와 IMF 구제금융 지원 등 국제사회의 영향력 확대로 비교적 안정적 정국운영이 이루어지고 있으나, 이슬람 종파 간 갈등 및 파키스탄탈레반의 테러 등 사회적 불안요인이 존재함.
- 만성적 쌍둥이 적자로 파리클럽 채무재조정이 6차례 진행되는 등 외채상환 태도가 취약함. 다만, 최근 2013/14년 IMF 구제금융 지원 신규 승인 및 파키스탄 정부의 구조개혁 노력에 따른 재정건전성 개선, 외환보유액 확대 등으로 외채상환불능 가능성이 경감되고 있음.

조사역 송 용 원 (☎02-6255-5705)
E-mail: song@koreaexim.go.kr